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4년 3월 30일

발행인 : 현 명 호

인쇄일 : 2014년 3월 30일

주 소 :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격 및 개인차 연구회 (302동 B107호)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전 화 : 070-4806-3331 팩스 : 02-816-5124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이민규(경상대학교) 이인혜(강원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조성근(충남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

---

**Vol. 19, No. 1.**

**March. 2014.**

---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7@hanmail.net)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in-Kyu Rh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yae Yi(Kangwon National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Gun C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국제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총무이사 조 성 근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학술이사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재무이사 심 은 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 진 경 (송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 용 희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학교 교육대학원)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감 사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김 교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주 해 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간사 홍 혜 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집간사 김 선 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 19 권 제 1 호

### [개관논문]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 ..... 박 지 선 / 1

### [경험논문]

마음챙김 요가와 요가니드라가 마음챙김, 스트레스 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양 희 연·조 옥 경 / 23

마음챙김에 기초한 관계증진 훈련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정 화 숙·정 봉 교 / 43

웰빙인지기법이 버스 운전기사들의 스트레스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 민 경 은·김 정 호·김미리혜 / 63

마음챙김 명상이 중년 여성의 화병 증상,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유 승 연·김 미 리 혜·김 정 호 / 83

긍정 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 정 지 현·손 정 략 / 99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Knowledge of Evidence-based Services Questionnaire ..... Chad Ebesutani · Sungwon Choi / 119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정 소 영 · 김 종 남 / 147

Parental Knowledge of Peer Networks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Ethnic Group Comparisons within a National Study of Adolescents ..... Jieun Lee · Lisa Jordan-Green · Hyungcho Lee / 16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조절곤란이 걱정애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 양 경 은·박 기 환 / 18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 류 혜 라·박 기 환 / 203

알코올 중독자의 정서인식력과 자기개념,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 박 현 립·박 현 진·장 문 선·구 본 훈·배 대 석 / 219

다이어트, 섭취귀인양식 및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서적 섭식과 외부단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 ..... 박 윤 선·최 윤 경 / 235

흡연갈망과 금단증상이 금연유지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금연효과지각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김 지 회 · 이 영 호 / 253
Big-win과 Big-loss의 경험 유/무가 문제성 도박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	목 현 수 · 박 기 뽐 · 강 성 군 · 황 순 택 / 271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시각조망과 해석 수준의 효과 .....	최 성 은 · 최 훈 석 / 283
양육시설아동들의 인지능력 특성 .....	이 선 주 · 조 혜 수 · 오 상 우 / 303
성인에착과 실연 스트레스 및 실연 후 성장의 관계: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 .....	임 지 준 · 권 석 만 / 321
노인의 신체건강과 주관적 행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의 역할 .....	김 혜 경 · 서 경 현 / 353
완벽주의, 반추, 우울의 관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	박 지 연 · 이 인 혜 / 371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	정 선 경 · 정 남 운 / 387

**[Brief Report]**

아주 연민사랑척도 개발: Sprecher와 Fehr의 Compassionate Love Scale의 한국판 단축형 .....	김 완 석 · 신 강 현 / 407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및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 진 영 / 421
신체손상을 입은 산업재해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	이 해 경 · 서 경 현 / 431
여대생의 섭식 조절 행동에 대한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 검증 .....	이 미 령 · 신 용 균 / 443

#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sup>†</sup>

정 선 경<sup>‡</sup>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과 우유부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남녀 대학생 547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477부(남자 150명, 여자 327명)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우유부단척도(FIS), 분리개별화척도(SIS), 자기존중감척도(RSE), 자기개념 명확성척도(SCC)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 우유부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리개별화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유부단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우유부단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우유부단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리개별화가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서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모형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우유부단,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

<sup>†</sup> 본 연구는 정남운의 지도를 받아 정선경(2011)이 작성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선경, (420-74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270, E-mail: saskf@hanmail.net

인간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매 상황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보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율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민병배, 남기숙, 2000).

그러나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어 선택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꿈 꾸지만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여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할 때 가능한 대안들 모두에 비중을 두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Fenichel, 1945; Rado, 1974). 또한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으로 해석하여 결정상황에서 과도하게 신중해지고(Rassin, 2004),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지각하여 과도한 책임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장윤정, 2004).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Rassin & Muris, 2005<sup>b</sup>; Spunt, Rassin, & Epstein, 2009).

한편, 우유부단한 사람은 외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경향이 있어서(황정의, 2011; Salomone, 1982) 의사 결정 상황에서도 자신이 통제 밖의 요인에 의해 제한 받는다고 인식하고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더불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의존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

이 있다(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이처럼 우유부단은 삶 전반에서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성격문제를 보인다(장윤정, 2004; Van Marte & Cooper, 1984).

우유부단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우유부단을 강박장애, 우울장애, 의존성 성격장애와 같은 임상적 증후군들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진로미결정을 초래하는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우유부단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Salomone (1982)이 미결정(indecision)은 진로미결정과 같은 한정된 영역에만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발달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반면, 우유부단(indecisiveness)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성격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우유부단과 진로미결정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Di Fabio, Palazzeschi, Asulin-Peretz, & Gati, 2013; Germeijs & de Boeck, 2002; Osipow, 1999; Savickas, 2004). 또한 임상적 증후군들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강박성향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강박적인 사람들이 호소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불안 유발, 증상 관련 자극에 제한된 것이 아닌 광범위한 과제에서 나타난다는 가설이 지지되면서 보다 일반적인 반응양식으로 개념화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Frost & Shows, 199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유부단은 진로미결정이나 정신장애의 하위증상이 아닌 독립적인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유부단은 걱정하는 경향, 낮은 자존감, 비축(Frost & Gross, 1993),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등과 관련이 있으며, 우유부단한 개인들의 경향적 특성으로 높은 자의식(Swami, Sinniah, Pillai, Kannan, & Premuzic, 2008),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 확신, 높은 양가성 등이 있다(Salomone, 1982). 최근 연구들을 보면 성격의 5요인 중에서도 특히 신경증적 경향(Neuroticism)과 특질 불안이 우유부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Di Fabio & Palazzeschi, 2012; Diab, Gillespie, & Highhouse, 2008; Germeijs & Verschueren, 2011).

이처럼 우유부단은 심리적·행동적 역기능을 보이며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성격특성으로서(김수정, 2013; 김혜진, 2010), 오랜 기간 동안 성격의 재구조화나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3; Salomone, 1982; Spunt et al., 2009). 그러나 성격 특성은 그 자체를 치료의 초점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성격이 형성되는 발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우유부단은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중 완벽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 성취지향성 및 자율성, 의존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의존성 및 애정욕구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여 우유부단이 자율과 의존의 갈등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우유부단이 높은 집단에서 초기 발달과정 중 의존과 자율의 갈등개념이 반영된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이선해, 2010; 정혜윤, 2001).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개체로서 개별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인간은 관계형성과 개별화에 대한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욕구와 독립의 욕구가 모두 적절하게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분리개별화기에 유아는 양육자에 대한 의존과 독립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양육자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점차 양육자와의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된다. 이로써 유아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지·지각·정서 발달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Mahler, Pine, & Bergman, 1975).

그러나 분리개별화기에 어머니-유아 관계가 양가감정, 불안 혹은 어머니로부터의 거부로 이루어진다면, 양육자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양육자와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독립에 대한 처벌로 인해 죄책감을 느껴 의존적이 되거나, 양육자의 거부로 인하여 자신의 의존적 갈망을 부정하고자 과도하게 강인한 개성과 독립심을 보이려는 형태로 발달할 수 있게 된다(Gabbard, 2005; 2008).

이렇듯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유아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고(Bowlby, 1979),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특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양육자와의 분리개별화에서 어려움을 나타낸 대학생들이 적절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Hoffman & Weiss, 1987; Santos & Coimbra,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점차 독립하고 자기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인 분리개별화를 예언변인으로 가정하여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개별화의 결과로 개인은 자기감(a sense of that "I am")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개념은 성격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규, 1999).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존감, 불명확한 자기정체감 등의 자기개념이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다(Rassin et al., 2007; Salomone, 1982; Valentian, Giovanni, Francesco, & Ugo, 2013).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기에 대한 믿음, 평가, 기억을 포함하고 자기 관련 정보의 처리를 조절하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화된 지식 구조이다(Campbell et al., 1996; Greenwald & Pratkanis, 1984). 초기의 자기개념은 미분화되고 단일화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자기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동의하며 자기개념을 내용적인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Linville, 1985, 1987). 자기개념의 내용적인 요소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이 자신의 역할, 가치 등 세부적인 특성과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자기존중감, 자기가치감, 자기긍정성 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oolfolk, Novalancy, Gara, Allen, & Polino, 1995). 구조적인 요소는 자기개념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분화된 체계로 정의하고 자기개념의 조직화 방식에 관심을 둔다(Markus, 1990; Marsh, Relich, & Smith, 1983). 여기에는 자기개념 복잡성(Linville, 1987), 자기개념 명확성(Campbell, 199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하나의 자기개념으로 묶여지므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자기존중감은 자기개념의 내용적 측면을 설명하고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을 설명한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결정 상황에서 중요한 참조기준이 되며(Setterlund & Niedenthal, 1993), 자기개념의 내용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의되고, 안정적이며 일관성이 있는가를 반영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와 외부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Campbell, 1990). 따라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함께 연구한다면 자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Campbell(1990)은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였고,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다른 심리적인 요인들과 연관되어 인간의 심리적 안녕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할만하다고 여기지 못한다(Baumgardner, Kaufman & Levy, 1989; Coopersmith, 1967; Crocker & Park, 2004). Valentina 등(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 의사소통과 우유부단 사이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편,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일관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아 자기관련 외적 단서들에 더 많이 영향 받고, 민감하고, 보다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외적 단서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정의 상황에서 우유부단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불명확하고 안정적, 일관적이지 않은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며, 자율성을 성취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효과로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 한 후, 이 중

에서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7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50명(31.4%), 여학생이 327명(68.6%)이었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만 18세부터 29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1.57세(표준편차 2.56)였다.

### 측정도구

**우유부단 척도 (Frost's Indecisiveness Scale : FIS).** Frost와 Shows(1993)가 강박성향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및 우유부단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더 우유부단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혜윤(2001)이 번안한 한국판 우유부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우유부단 척도의 총점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정혜윤(2001)의 연구에서는 분포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차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한국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연구자의 논리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우유부단 척도를 정혜윤(2001)이 요인분석한 결과, 결정 사전 사후의 정서적 장애를 나타내는 '결정에 대한 불안 및 의심'(5문항), 결정과정에서의 행동적 지연을 나타내는 '결정속도의 지연'(5문항),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인지적 구조화 부족을 나타내는 '결정과정의 역기능성'(5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하위차원의 내적 합치도는 .77, .72,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유부단의 전

체 내적 합치도는 .87이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결정에 대한 불안 및 의심 .76, 결정속도의 지연 .73, 결정과정의 역기능성 .76이었다.

**분리-개별화 (Separation-Individuation Scale : SIS).**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 김인경(1993) 등이 번안하고 박경순(1997)이 성인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된다. 하위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 1요인은 비교적 강한 분리에 관한 내용들과 이에 더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로 자기 안으로 몰입하거나, 의존 욕구를 부정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화 및 가(假)독립(Individuation-Pseudo Independent)’, 제 2요인은 대상에게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persecutory anxiety)과 분리 불안 및 대상과 공생관계(symbiosis)로 남아있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생관계 및 1차적 불안(Symbiosis-Primarity Anxiety)’ 이다(박경순, 1997).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며, 개별화 소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성인의 사회적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립 또는 소외 개념과 유사하다(박부형, 2000).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으며,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제 1요인이 .85, 제 2요인이 .75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2이며 분리-개별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분

과 내적 합치도는 제 1요인이 .89, 제 2요인이 .76이었다.

**자기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 RSE).** 전반적 자기존중감(global self-esteem)의 평가를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게 평가된다. 이훈진과 원호택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 내적 일관성, 안정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Campbell 등(1991)이 개발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단축되었다(Campbell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된다. 높은 점수일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와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대익(199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우유부단 척도(FIS), 성인용 분리개별화 척도(SIS), 자기존중감 척도(RSE),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CC)를 소책자로 구성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설문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for Windows, AMOS 18.0 프로그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분석방법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의 절차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총점을 사용한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의 경우 문항꾸러미 제작(item parceling) 방법을 통해 지표변수를 만들어 사용했다.

셋째,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들 중 상대적으로 보다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해  $\chi^2$  차이 검증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

다섯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다. Amos에서는 매개변인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면 전체 매개효과 및 유의도를 제시할 뿐 간접경로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여섯째, 최종 구조모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종모형의 효과분석을 하였다.

## 결과

###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정상성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정상성을 만족시키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왜도<2.0, 첨도<7.0인 경우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미지수의 추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West, Finch & Curran, 1995)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의 적격성이 만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변수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변인들의 상관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

####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

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 CFI 값은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 값은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0.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전체모형을 고려한 분석 결과, 모형이 수용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준화 계수의 값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과 같은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47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분리-개별화	2.64	.31	.25	-.08
개별화 및 가(假)독립	2.25	.56	.65	.29
공생관계 및 1차적 불안	3.04	.58	.15	.00
자기 존중감	3.68	.67	-.43	-.14
자기개념 명확성	3.16	.63	-.09	-.37
우유부단	2.83	.59	.07	-.24
결정에 대한 불안 및 의심	2.99	.67	-.05	-.34
결정속도의 지연	3.00	.70	-.09	-.42
결정과정의 역기능성	2.45	.73	.37	-.26

표 2. 변인들 간 상관

	1	1-1	1-2	2	3	4	4-1	4-2	4-3
1 분리개별화	1.00								
1-1 가독립	.829***	1.00							
1-2공생관계	.697***	.337***	1.00						
2 자기존중감	-.435***	-.587***	-.298***	1.00					
3 자기개념 명확성	-.478***	-.477***	-.385***	.488***	1.00				
4 우유부단	.352***	.370***	.353***	-.555***	-.562***	1.00			
4-1불안의심	.333***	.342***	.337***	-.500***	-.467***	.824***	1.00		
4-2속도지연	.187***	.180***	.252***	-.372***	-.403***	.843***	.542***	1.00	
4-3역기능성	.366***	.410***	.303***	-.528***	-.545***	.855***	.558***	.582***	1.00

\*\*\*  $p < .001$ .

의미로,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운 표준화 계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계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관찰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46에서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p < .001$ .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1로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 2는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포함하고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모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는 각각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또한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를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chi^2$  값이 0.751 작고, 자유도가 1이 작다. 그런데 자유도 차이 1에 대한  $\chi^2$  차이가 유의수준 .05일 때의 임계값인 3.84보다 작다. 따라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모형은 같은 정도의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10). 하지만 모형 1(TLI=.959, CFI=.972, RMSEA=.067)이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model	df	$\chi^2$	TLI	CFI	RMSEA
측정모형	29	96.699( $p=.000$ )	.956	.972	.070(.055~.086)

표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경로	B	$\beta$	SE	t
분리개별화	가독립	1.00	.74		
	공생	.64	.46	.07	8.59***
자기존중감	RSE1	1.00	.91		
	RSE2	1.00	.87	.05	21.93***
자기개념 명확성	SCC1	1.00	.84		
	SCC2	.97	.82	.05	20.37***
	SCC3	1.02	.84	.05	20.90***
우유부단	불안의심	1.00	.74		
	속도지연	1.00	.69	.07	13.51***
	역기능성	1.23	.82	.08	15.30***

\*\*\*  $p < .001$ .

RSE1, RSE2=문항꾸러미 제작방식으로 만든 자기존중감 척도의 지표변수.

SCC1, SCC2, SCC3=문항꾸러미 제작방식으로 만든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의 지표변수.

모형 2(TLI=.958, CFI=.972, RMSEA=.069)보다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두 모형에서 차이를 보인 적합도 TLI와 RMSEA는 모형오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모형오류가 적고 간명할수록 적합도가 좋아진다(홍세희, 2001). 따라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가 축소된 모형 1이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단순하게 설명하여 간명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모형 1의 검증 결과.**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직접적 효과를 제외한 모형 1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모든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분리개별화가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분리개별화가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 자기존중감이 우유부단으로 가는 경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우유부단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표준화된 회귀

표 5.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지수

model	df	$\chi^2$	TLI	CFI	RMSEA
모형1	31	97.941( $p=.000$ )	.959	.972	.067(.053~.083)
모형2	30	97.190( $p=.000$ )	.958	.972	.069(.054~.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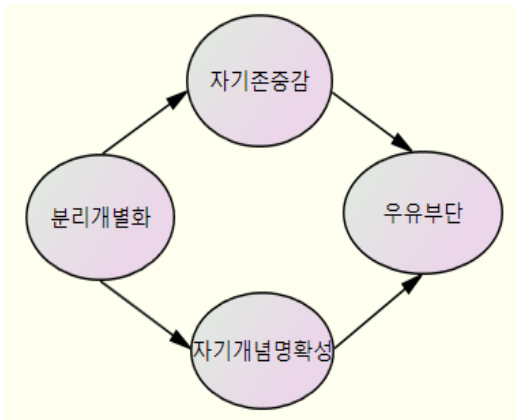


그림 1. 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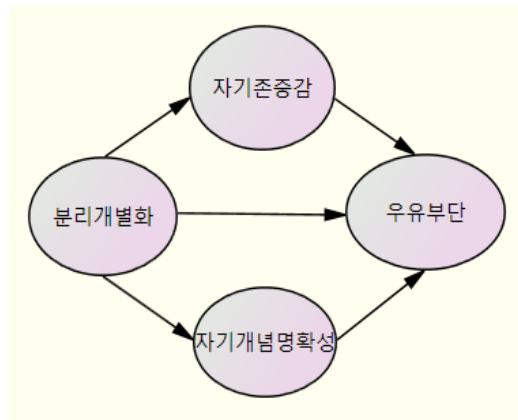


그림 2. 모형2

표 6. 모형 1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beta$	SE	t
분리개별화 → 자기존중감	-1.19	-.80	.10	-12.34***
분리개별화 → 자기개념 명확성	-1.00	-.70	.09	-11.34***
자기존중감 → 우유부단	-.32	-.41	.04	-7.32***
자기개념 명확성 → 우유부단	-.37	-.45	.05	-7.85***

\*\*\*  $p < .001$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경로계수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이며, .10에서 .50이면 중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를 나타낸다(Kline, 1998). 분리개별화는 자기존중감( $\beta=-.80$ )과 자기개념 명확성( $\beta=-.70$ )에 큰 효과를 미치며, 자기존중감은 우유부단( $\beta=-.41$ )에 중간효과를, 자기개념 명확성도 우유부단( $\beta=-.45$ )에 중간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가 자

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하여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모형이 성립된다.

**모형 2의 검증 결과.**

표 7을 살펴보면, 분리개별화에서 우유부단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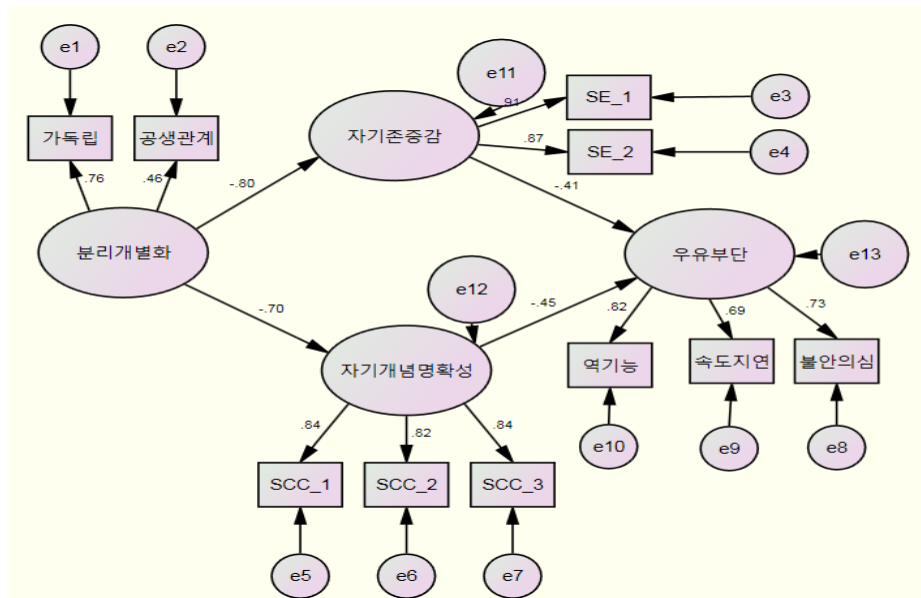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의 각 변인간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7. 모형 2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beta$	SE	t
분리개별화 → 자기존중감	-1.18	-.81	.10	-12.39***
분리개별화 → 자기개념 명확성	-0.99	-.70	.09	-11.38***
분리개별화 → 우유부단	-.15	-.13	.16	-.90
자기존중감 → 우유부단	-.38	-.49	.08	-4.67***
자기개념 명확성 → 우유부단	-.41	-.50	.06	-6.37***

\*\*\* $p < .001$ .

직접적인 영향과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가설한 모형 2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모형1( $\chi^2=97.941$ ,  $df=31$ , TLI=.959, CFI=.972, RMSEA=.067)의 적합도 지수가 모형 2( $\chi^2=97.190$ ,  $df=30$ , TLI=.958, CFI=.972, RMSEA=.069)의 적합도 지수보다 높았다. 또한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1과 같이 분리개별화가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우유부단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채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

분리개별화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우유부단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Z값을 검증해 본 결과, 매개효과는 6.6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1$ .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분리개별화가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우유부단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에 대해 Z값 검증을 해 본 결과, 매

개효과는 6.16으로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1$ .

**최종 구조모형의 총효과 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이 우유부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통해 밝혀진 이론 변인들 간의 효과를 분해하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종모형의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모형(모형1)의 효과성을 분해하면, 분리개별화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직접효과(-.80)와 자기존중감이 우유부단에 미치는 직접효과(-.41)가 유의하였고,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33로 유의하였다. 또한 분리개별화의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효과(-.70)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우유부단에 대한 직접효과(-.45)가 유의하였으며,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표 8.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리개별화 → 자기존중감	-.80	-	-.80
분리개별화 → 자기개념 명확성	-.70	-	-.70
분리개별화 → 우유부단	.00	.65	.65
자기존중감 → 우유부단	-.41	-	-.41
자기개념 명확성 → 우유부단	-.45	-	-.45



.32로 유의하였다.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65)가 곧 총효과(.65)이며,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33)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32)의 합인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 우유부단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리개별화(SIS)와 분리개별화 하위요인(가독립, 공생관계)은 자기존중감(RSE), 자기개념 명확성(SCC)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유부단(FIS), 우유부단 하위요인(불안의심, 속도지연, 역기능성)과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우유부단, 우유부단 하위요인(불안의심, 속도지연, 역기능성)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아름, 2009; 이선해, 2010; 백옥경, 2010; Campbell et al., 1991)과 일치했다.

둘째,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분리개별화에서 우유부단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거하고 분리개별화가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서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1이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으나, 모형 2에서 분리개별화의 우유부단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2는 기각되었다.

채택된 모형의 경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모형 2의 분리개별화에서 우유부단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 2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유부단에 대한 분리개별화의 직접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인이 개입되는 경우 직접 영향이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우유부단에 대한 의미 있는 예언변인임을 나타낸다. 이선해(2010)의 연구에서도 분리개별화에서 우유부단으로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개념의 내용적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졌다. 또한 분리개별화의 우유부단에 대한 직접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우유부단이 분리개별화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성 욕구충족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형 1의 각 경로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자

기존중감에 대하여, 분리개별화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리개별화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불명확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자기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긍정적 자기존중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백옥경(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졌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이기재(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분리개별화를 통해 개인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해지며(이기재, 2009; Mahler et al., 1975),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이 발달하게 된다(이선영, 2004; 백옥경, 2010).

한편, 자기존중감에서 우유부단으로 가는 경로와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우유부단으로 가는 경로 또한 모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유부단이 높았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우유부단이 높았다. Salomone(1982)은 우유부단이 자기정체감 혼란, 낮은 자존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의 평가나 판단을 신뢰할만하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외부의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Baumgardner, 1990; Baumgardner et al., 1989; Coopersmith, 1967; Crocker & Park., 2004).

자기개념 명확성이 우유부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 대안들 간에 갈등을 느끼며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좋고 나쁨, 우월하고 열등한 것처럼 분명하게 진단되지 않는 비교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Campbell, Fairey & Fehr, 1986) 결정의 상황에서 더욱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특히 부정적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위협을 느껴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수 있다(Nezlek & Plesko, 2001). 이러한 사람들은 결정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예측되는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우유부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존중감( $z=6.64, p<.001$ )과 자기개념 명확성( $z=6.16, p<.001$ )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두 변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우유부단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온 것과는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진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더하여 내용적인 측면인 자기존중감과 구조적인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이 각각 독립적으로도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특성을 보이게 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불안정하고 비일관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 대안들 간에 갈등을 느끼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분명하게 진단되지 않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하며 이를 위협적으로 느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함으로써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발달적 요인을 밝히고 분리개별화가 어떤 기제를 거쳐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우유부단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분리개별화는 우유부단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불명확성이 그 과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유부단으로 인해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격 형성에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 분리개별화 과정은 다른 정신내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기를 통해서 반복되면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유아기 이후에도 분리개별화는 지속된다(Mahler et al., 1975). 따라서 결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부단한 내담자들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통해 의존과 독립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갖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alomone(1982)는 우유부단한 성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독립을 향한 개인의 발달을 위한 지지적인 관계를 제공하기(Morrill & Forrest, 1970). 둘째, 자기탐색을 하게 하는 것(가치, 욕구, 열망, 두려움, 선호, 관계 등). 셋째, 독립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도움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신감 높이기. 이러한 치료적 개입은 본 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학생 전반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분리개별화, 자기존중감, 자기개념 명확성 및 우유부단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보고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검사반응 태도에 따라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유부단 척도에서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윤(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FIS(Frost's Indecis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FIS는 Frost와 Shows(1993)가 강박적 우유부단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우유부단의 개념이 독립적인 성격특성임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가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우유부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분리개별화가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자기 존중감 향상을 위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자기개념 명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은 드물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3).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우유부단에 따른 하위집단과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름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3)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 김정규 (1999). 성신자기개념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혜진 (2010).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유부단을 매개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남기숙 (2000).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박경순 (1997).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부형 (2000).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옥경 (2010).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이기재 (2009).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人間理解, 30(2), 81-99.
- 이선영 (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 (2010).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아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장윤정 (2004). 완벽성향 우유부단과 의존성향 우유부단

- 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윤 (2001). *강박성향과 우유부단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황정의 (2011). 성역할정체성, 삶의 지향성, 내적 통제성과 우유부단의 관계 연구. *社會科學研究*, 37(1), 21-4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62-1072.
- Baumgardner, A. H., Kaufman, C. M., & Levy, P. E. (1989). Regulating affect interpersonally: When low esteem leads to greater 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07-921.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Limited.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in association with Methuen Inc.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ampbell, J. D., Fairey, P. J., & Fehr, B. (1986). Better than me or better than thee? Reactions to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54(3), 479-493.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rtz, I. M., Lavalley L. F., &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Diab, D. L., Gillespie, M. A., & Highhouse, S. (2008). Are maximizers really unhappy? The measurement of maximizing tendency.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 364-370.
- Di Fabio, A., Palazzeschi, L. (2012). Incremental variance of the core self-evaluation construct compared to fluid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traits in aspects of decision-ma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196-201.
- Di Fabio, A., Palazzeschi, L., Asulin-Peretz, L. & Gati, I. (2013) Career Indecision Versus Indecisiveness: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42-56
- Fenichel, O. (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orton.
- Frost, R. O. & Shows, R. L. (199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compulsive indecisivenes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1, 683-692.

- Frost, R. O., & Gross, R. C. (1993). The hoarding of pos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4), 367-381.
- Gabbard, G. O. (2008). 역동정신의학 (이정태,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Germeijs and de Boeck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 Germeijs, V. & Verschueren, K. (2011). Indecisiveness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Relationship and specific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023-1028.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J. A.,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ahler, M., Pine, R.,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Basic books. New York.
- Markus, H. (1990). Un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41-253.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sh, H. W., Relich,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Morrill, W., & Forrest, D. (1970). Dimensions of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9*, 299-305.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Rado, S. (1974). *Obsessive behaviour: A so-called obsessive-compulsive neurosis*. Inc. Arieti (Eds.), *American Handbook of Psychology*, vol. III, 2nd ed., pp. 195-208. New York: Basic Books.
- Rassin, E. (2004). Indecisiveness and worst case scenario reasoning. In Post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f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11 September 2004, Manchester,
- Rassin, E. & Muris, P. (2005<sup>b</sup>). Indecisiveness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itu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1285-12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ntos, P. J. & Coimbra, J. L. (2000). Psychological

- separation and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46-362.
- Savickas, M. (2004). Vocational psychology.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pp. 655-667).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 Setterlund, M. B., & Niedenthal P. M. (1993). "Who Am I? Why AM I Here?": Self-Esteem, Self-Clarity, and Prototype Matc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769-780.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1(1), 1-11.
- Spunt, R. P., Rassin, E., & Epstein, L. M. (2009). Aversive and avoidant indecisiveness: Roles for regret proneness, maximization, and BIS/BAS sensitiv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4), 256-261.
- Swami, V., Sinniah, K., Pillai, S. K., Kannan, & Premuzic, T. C. (2008).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Malay version of the UCLA Loneliness Scale (ULS-8) and a comparison of loneliness among sojourning and non-sojourning Malaysia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and Mental Health*, Volume 2, Issue 1 June 2009, pages 38-50.
- Van Marte, G., & Cooper, S. (1984). Concurrent evaluation of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4, 637-639.
- Valentian, L. C., Giovanni, G., Francesco, P., & Ugo, P.(2013). Anxiety and self-esteem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indecisiveness in adolescence. *Int Educ Vocat Guidance* 13135-149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olfolk, R. L., Novalanc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원고접수일: 2014년 1월 18일

논문심사일: 2014년 2월 3일

게재결정일: 2014년 2월 28일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decisiveness

Seon Kyung Jeong

Nam 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decisiveness. For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paration-individuation, self-esteem, self-concept clarity and indecisive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were investigated. After assum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decisivenes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validation was conducted. For these purposes, 477 college students (male 150, female 327)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survey us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tested with Frost's Indecisiveness Scale (FIS), Separation-Individuation scale (SIS), 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 and Self-Concept Clarity Scale (SCC). This study used the SPSS 18.0 program and the AMOS 18.0 program for establishing the analysis of study ques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indicating that the more difficult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he higher the grades and self-esteem, together with separation-individ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decisiveness,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indecisiveness,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indecisiveness.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ffecting the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decisiveness.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Indecisiveness, Separation-Individuation, self-esteem, self-concept clarity*